

KISTEP 통계 브리프 2009-4호

외국인 직접투자의 잠재력 분석

- UNCTAD Inward FDI potential Index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외국인 직접투자의 잠재력 분석

KISTEP 조사분석실

UN무역개발협의회에서 발표한 「FDI Performance & Potential」을 정리 · 분석함

1. 개 요

- UNCTAD에서는 국제무역, 외국인 직접투자와 상품에 대해 분석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적인 동향을 이해하기 위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무역개발협의회)는 UN 산하의 상설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됨
-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잠재력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Inward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potential Index를 산출하고 있음
 - 외국인에게 경제적 이점이라고 생각되는 요소인 12개 지표를 표준화하고 평균을 산출하여 지수로 나타냄
 - * 1인당 GDP, 지난 10년간의 GDP 성장률(1996년~2006년), GDP대비 전체 수출 비율, 100명당 전화 회선수와 휴대전화수, 1인당 에너지 사용량, GDP대비 R&D 투자 비율, 총인구의 3차 교육 학생의 비율, 국가 위험(Country Risk), 자연자원 수출의 세계시장 비율,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부품 수입의 세계시장 비율, 서비스 수출의 세계시장 비율, 세계 FDI inward stock의 비율 등 12개 지표 등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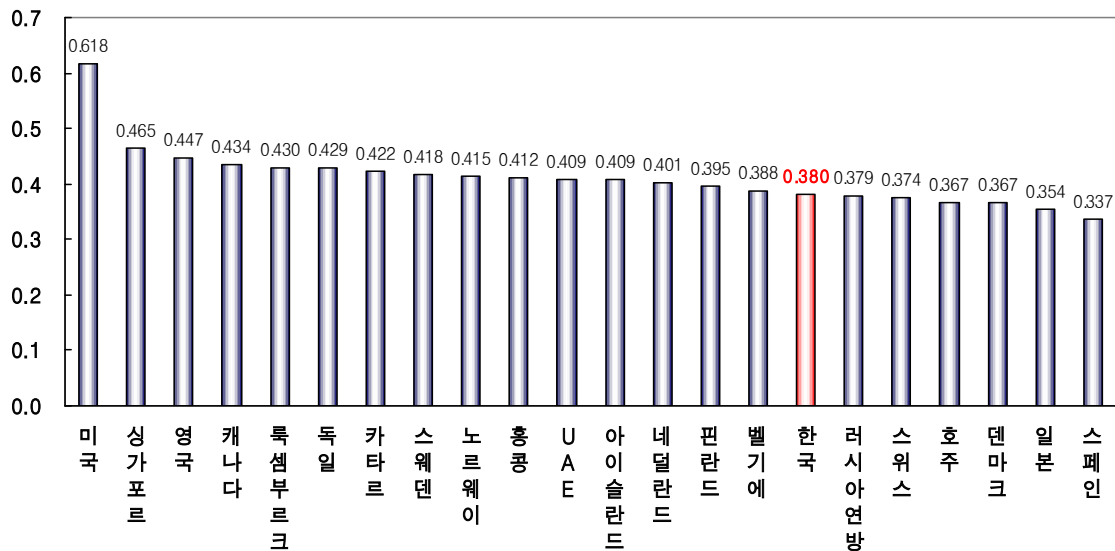
1) 2006년 또는 2004~2006년 3년 평균 기준임 자세한 내용은 <http://www.unctad.org/Templates/WebFlyer.aspx?intItemID=2470&lang=1> 참조

2. 주요 내용

□ Inward FDI Potential Index 분석

- 우리나라는 전체 비교 대상 141개국 가운데 19위를 차지
 - 미국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카타르 등 소규모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
 - 우리나라는 아시아 경쟁국인 일본, 중국에 비해 약간 앞서 있으나 홍콩, 대만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
- * 홍콩 10위(0.412), 대만 17위(0.384), 일본 24위(0.354), 중국 32위(0.304)

[그림 1] Inward FDI Potential Index 결과



▶ 출처 : UNCTAD

- 또한 우리나라의 GDP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싱가포르, 아일랜드, 영국, 독일, 미국 등과 비교하여 열세
-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4년 1.3%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6년 0.6%를 기록

[표 1] 외국인 직접투자유입액의 GDP 대비 비중

(단위: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싱가포르	8.9	20.1	17.8	18.3	8.2	12.6	18.5	12.9	18.3
아일랜드	10.3	19.0	26.7	9.2	24.0	14.5	-5.8	-15.5	5.8
영국	5.2	6.0	8.2	3.7	1.5	0.9	2.6	8.7	5.9
중국	4.5	3.7	3.4	3.5	3.6	3.3	3.1	3.2	2.6
독일	1.1	2.6	10.4	1.4	2.7	1.3	-0.3	1.3	1.5
미국	2.0	3.1	3.2	1.6	0.7	0.5	1.2	0.8	1.3
한국	1.5	2.2	1.8	0.9	0.6	0.7	1.3	0.9	0.6
대만	0.1	1.0	1.5	1.4	0.5	0.1	0.6	0.5	2.0
일본	0.1	0.3	0.2	0.2	0.2	0.1	0.2	0.1	-0.1

▶ 출처 : 「외국인직접투자가 설비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08.4.

□ 세부 지표 분석

-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의 잠재력을 높여주는 요소 중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분야에 강점을 보임
- 3차 교육(tertiary education)²⁾이상의 학생의 비율은 141개 비교 대상국 중 1위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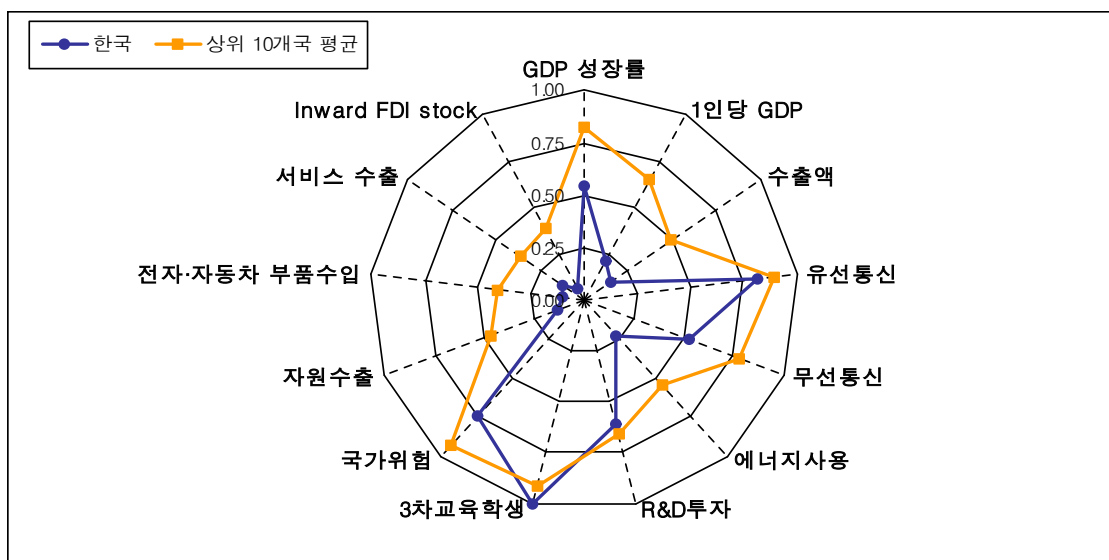
2) 국제표준교육분류개정안(ISCED-97)의 5B, 5A, 6에 해당하며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정을 포괄함. 5B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각종학교(전문대학, 대학과정), 산업대학, 기술대학, 전문/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말하며, 5A는 대학(교), 일반대학원/대학원대학 석사학위 과정, 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고, 6은 전문연구프로그램으로 일반대학원/대학원대학 박사학위 과정이 해당함.

- 또한 GDP 대비 R&D 투자와 100명당 전화 회선수가 상위 10개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

* 상위 10개국 평균 : GDP 대비 R&D 투자 0.659, 100명당 전화 회선수 0.892

- 반면 기존의 FDI에 대한 이점 및 투자 환경, 1인당 GDP, 서비스 분야 수출 및 전자·자동차 부품 수입의 세계시장 비율 등에서 약점을 보임
- 기존의 FDI에 대한 이점이나 투자 환경을 나타내는 Inward FDI stock의 전세계 비중은 상위 10개국 평균의 1/6 수준으로 가장 취약
- 1인당 GDP와 서비스 분야 수출의 세계시장 비율은 상위 10개국 평균의 1/3 수준
- 또한 전자·자동차 부품 수입의 세계시장 비율은 상위 10개국 평균의 25% 수준에 불과

[그림 2] 한국 및 상위 10개국 평균의 세부지표별 표준화 값



▶ 출처 : UNCTAD

[표 2] 주요국과의 세부지표 비교(한국 강점 부문)

구분	10년간 GDP 성장률 (%)	GDP 대비 R&D 투자(%)	3차교육 학생수 비율(%)
한국	4.6	2.9	6.69
미국	3.0	2.7	5.81
싱가포르	4.7	2.3	4.30
영국	2.8	1.7	3.90
중국	9.0	1.3	1.76
일본	1.1	3.2	3.19

▶ 출처 : UNCTAD

[표 3] 주요국과의 세부지표 비교(한국 약점 부문)

구분	1인당 GDP (USD)	전자·자동차 부품 수입의 전세계 비중(%)	서비스 수출의 전세계 비중(%)	Inward FDI stock의 전세계 비중(%)
한국	16453.2	1.34	1.82	1.0
미국	41768.8	13.76	15.07	15.3
싱가포르	28164.8	3.19	2.06	1.9
영국	37969.1	4.33	8.34	8.4
중국	1776.6	7.67	3.00	2.5
일본	35224.3	3.02	4.26	1.0

▶ 출처 : UNCTAD

□ 외국인 직접 투자와 잠재력 비교

-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 성과 지수(Inward FDI performance index)³⁾가 126위로 경제규모에 비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부진
- 룩셈부르크, 홍콩, 몰타 등 소규모 국가들이 상위권 순위를 차지

3) 각 국가의 경제 규모를 고려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지수화한 것임. 한 국가의 GDP 대비 FDI 유입과 전세계 GDP대비 FDI 유입의 비율로 나타냄.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많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게 받는 것을 나타냄.

- 우리나라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잠재력이 실제 외국인 직접투자에 비해 높은 Below potential 그룹에 포함되어 있음
- 잠재력은 높으나 여전히 외국인 직접 투자는 GDP에 비해 비교 대상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분석을 실시한 '88년 이후 계속 Below potential 그룹에 포함
- 싱가포르, 영국은 Front runners 그룹에, 미국, 일본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Below potential 그룹에 포함

[표 4] Inward FDI performance index 순위

순위	1	2	3	4	5	6	40	75	114	126	137
국가	룩셈부르크	홍콩	불가리아	아이슬란드	몰타	싱가포르	영국	중국	미국	한국	일본
지수	17.87	13.5	12.68	7.614	7.395	9.16	9.04	8.23	2.02	2.43	0.55

▶ 출처 : UNCTAD

[표 5] 외국인 직접 투자와 잠재력 비교⁴⁾

구분	High FDI Performance	Low FDI Performance
High FDI Potential	Front-runners 그룹 홍콩, 싱가포르, 태국, 룩셈부르크, 영국, 아이슬란드	Below potential 그룹 한국, 미국, 캐나다, 핀란드, 중국, 독일, 일본, 스위스
Low FDI Potential	Above potential 그룹 알바니아, 콜롬비아, 이집트, 토고, 베트남	Under-performers 그룹 방글라데시, 인도, 터키, 예멘, 필리핀, 가나

▶ 출처 : UNCTAD

- 4) 국가군을 Inward FDI potential과 performance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함
- Front-runners 그룹: 높은 potential과 performance를 보이는 국가
 - Above potential 그룹: 낮은 potential과 높은 performance를 보이는 국가
 - Below potential 그룹: 높은 potential과 낮은 performance를 보이는 국가
 - Under performance 그룹: 낮은 potential과 performance를 보이는 국가

3.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경쟁국 및 선진국과 비교할 때 외국인 직접 투자 잠재력이 낮은 수준
 - 전체 비교 대상 141개국 중 외국인 직접투자 잠재력 및 성과 지수가 각각 19위, 126위로 나타남
-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잠재력에 비해 성과가 매우 낮으며 지수간 큰 차이를 보임
 - GDP에 비해 비교 대상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원인 파악이 필요
- UNCTAD, OECD등은 미국 경제의 하강세, 금융시장의 혼란 등 세계 경제침체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⁵⁾
 - UNCTAD(세계 투자 보고서, 2008.09)는 2008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를 2007년(1.8조 달러) 대비 10% 감소한 1.6조 달러로 예상
 - OECD(2008.6) 역시 2008년 OECD 국가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2007년 1.4조 달러에서 2008년 1.0조 달러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의 양적 확대와 관련 제도개선 등이 필요
 - 인허가 관련 행정서비스 개선, 조세감면·보조금·저리대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전략적 투자유치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만의 노하우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
 - * 자유무역지역 외국기업 임대료 확대감면제도 도입(국토부, '09.3), 지방세 감면 신청을 포함한 민원사무 321종의 법정처리기간 단축(행안부, '09.3)
 - ※ OECD의 외국인 R&D 직접투자의 효과 분석에 따르면, 국내 R&D가 1% 증가하면 국내 요소생산성을 0.13% 증가시키는데 비해, 해외 R&D는 1% 증가하면 국내 요소생산성을 0.45 내지 0.5%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⁶⁾

* 자료원 : UNCTAD Statistics

* 자료관련 문의 : 조사분석실 (02-589-2982, 고윤미)

5)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2008.12.)에서 재인용

6) R&D and Productivity Growth, OECD(2001.)